여여정사, 선 수행 도량으로 30년 불사 회향

11월 10일, 금오선원 개원식 봉행
정여 대종사 30년 숙원 도량
범어사 말사 선원 공백 해소
10여 명 스님 정진 체계 갖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경남 밀양 여여정사는 11월 10일 금오선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금오선원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의 창건 원력이 담긴 도량이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의 창건 원력이 30여 년 만에 '선 수행 도량'으로 회향됐다.

경남 밀양 여여정사(주지 도명 스님)는 11월 10일 금오선원 개원식을 봉행하고, 올해 동안거부터 선 수행 도량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개원식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불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주지 도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여여정사가 그동안 땅을 확보하고 도로를 넓히고 전각을 짓는 '형태의 불사'에 집중해 왔다면, 금오선원 개원은 이제 기존의 건물에 '내용을 채우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을사년 동안거가 금오선원의 첫 수행으로, 이 도량에서 펼쳐지는 수행력이 밀양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불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금오선원 개원은 수행의 불씨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 새롭게 세워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금오선원이 눈 밝은 납자들이 정진하는 수행 도량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축사에서 "방장 정여 대종사의 평생 불사가 드디어 선방 불사로 회향된 날"이라며 "그동안 선찰대본산의 말사에 정식 선원이 없는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금오선원 개원은 그 오랜 염원이 마침내 이뤄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납자들의 정진을 품고 시대의 수행 위상을 다시 세우는 도량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여정사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여 스님은 수행 중 반복적으로 떠오르던 한 도량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고, 그곳에서 인연을 맺어 여여정사를 세웠다. 스님은 이를 불보살의 가피로 받아들였으며, 주민들과의 협력 속에 도량을 일굴 수 있었다. 이후 여여정사는 대웅전, 약사전 동굴법당, 종각, 관음전, 선혜원, 문화원, 시민선원 등을 조성하며 점차 확장해 왔다. 창건 원력의 최종 목표였던 '수좌 선방' 건립은 금오선원 개원으로 완성됐다.

금오선원은 198.35㎡(60평) 규모로 10여 명의 스님이 방부를 들여 정진할 수 있는 선방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동 양측에는 각 2실씩 총 4개의 방이 배치됐고, 별도의 요사채는 99.17㎡(30평) 규모로 방 5실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조실채와 입승 스님이 사용하는 건물도 별도로 세워졌고, 당초 시민선원으로 활용 예정이던 공간도 당분간 선방 부속동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4주년 맞은 미소원, 지역사회 보살행 원력 재다짐

11월 8일, 미소원 법당서
기념법회…200여 명 동참



미소원은 11월 8일 부산 동구 법당에서 개원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회기 입장 후 독거어르신 반찬 봉사자들이 나와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개원 14주년을 맞아 보살행의 원력을 재다짐했다.

미소원은 11월 8일 부산 동구 법당에서 개원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기도 공동체에서 출발한 원력이 지역사회 보살행으로 확장돼 온 지난 활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법회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산 스님,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 플렉스몽크 선명상원 금후 스님 등 스님과 내빈 및 회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올해 미소원은 한국JTS, 부산불교환경연대 등에 총 5000여 만원을 전달하며 자비실천에 앞장섰다. 미소원은 앞서 10월 26일 울산 정토회 두북수련원에서 JTS 이사장 법륜 스님에게 기금 2700만원을 전달했고, 제2회 환경참회기도 모연금 1170만원을 부산불교환경연대에 전액 기부하며 환경보살의 실천을 이어 갔다. 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는 저금통 모연액 500만원을, 전법기금 1080만원은 플렉스몽크 선명상원 금후 스님에게 회향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소원 자비나눔 활동에 기여한 내빈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주)금양기업 정재수 대표와 오원순 이사에게 공로장이 수여됐고, 황정순·김현순 운영이사에게는 부산동구청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축하 법문에서 심산 스님은 "AI가 세상을 이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자비"라며 "지혜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만 자비는 타인을 자유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의 덕을 바라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 불교가 나를 보고 '덕이 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는 것이 신행의 핵심"이라고 평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작은 날개짓이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의 미소원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전법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라차문화원, 위트컴 장군 인류애 기리며 헌다례

11월 10일, 부산 유엔 평화공원
"참전용사 희생 · 헌신 기억할 것"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인류애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헌다례가 봉행됐다.

신라차문화원(회장 정분남·부산여성불자회장)은 11월 10일 부산 남구 유엔 평화공원 내 위트컴 장군 기념조형물 앞에서 '헌다례 및 달빛차회'를 열고 리차드 위트컴이 전쟁 가운데 펼친 박애 정신과 부산 재건 활동을 시민과 함께 되새겼다.

헌다례에는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서성부 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분남 신라차문화원 회장, 박유순 원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분남 회장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헌다례가 시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위트컴 장군은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적 신념을 잃지 않고 고아원 설립과 부산 재건에 헌신한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장군의 뜻을 잊지 않고,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순 신라차문화원장은 "장군께서는 인류애와 희생정신으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신 분으로, 오늘 우리는 그 뜻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따뜻한 한 잔의 차에 담아 올린다"고 말했다.

리차드 세이버 위트컴(1894~1982)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미 제2군수기지사령관으로, 1953년 부산역전 대화재 당시 미군의 물자와 인력을 투입해 3만명의 이재민을 구호했다. 전쟁 후에도 고아원과 복지시설, 학교 건립을 지원하며 한국 재건에 힘썼고 "내 유해의 일부를 한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리차드 장군의 인류애와 헌신은 '부산의 은인', '전쟁 속의 인도주의자'로 기억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11월 11일 11시, 부산불교 유엔 참전용사 추모 타종

팔관회 회향 기념 행사
호국 · 평화 의미 되새겨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 전역 사찰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타종식을 일제히 봉행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한국전쟁 유엔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했다.

팔관회 회향을 기념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불교계가 호국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종소리에 담은 뜻깊은 추모 의식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을 비롯한 범어사 스님 10여 명이 참석해 11차례 종소리를 울리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어 스님과 불자들은 1분간 묵념하며 전몰용사와 순국선열들의 "국민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가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유엔참전국이 함께 1분간 묵념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턴 투워드 부산'은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 유엔 참전국과 유엔 참전용사 198만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행사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인 보덕관음사, "지역 중심 도량" 서원

개산 50주년 기념법회 봉행
사부대중 500여 명 참석



용인 보덕관음사(주지 혜오 스님)가 개산 50주년을 맞아 11월 8일 기념법회와 산사음악회를 열고 지역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장 정호 스님(대각사 회주)을 비롯해 백련사 법공 스님, 일광사 광월 스님, 잠실 불광사 동민 스님, 해룡사 현수 스님, 정원사 녹관 스님 등 스님 20여 명과 현태주 용인불교신도회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김정식 용인시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보덕관음사 주지 혜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창건주 혜운 스님의 원력으로 일궈진 보덕관음사는 반세기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수행과 포교, 나눔으로 지역 불교의 중심도량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정호 스님의 법문에서는 "보덕관음사는 불교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수행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이어 가야 한다"며 "지난 50년의 불심이 새로운 백년불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선광사, 개원 24주년 기념법회·경로잔치

11월 7일, 선광사 경내 특설무대
대덕여고 학생에 900만원 장학금



부산 사상구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 스님)는 11월 7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24회 개원 기념 법회 및 효사랑 경로 큰잔치'를 봉행했다.

행사는 부처님 자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어르신 공경과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광사는 이날 지역 협력학교인 대덕여고 학생 3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광사는 개원 이후 24년째 대덕여고에 장학금을 후원하며 지역 미래세대의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다이아몬드든 옥이든 다듬지 않으면 보석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이 자신을 제일 잘 알기에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 자신만의 재능을 갈고닦아 세계 최고가 되라"고 당부했다.

2부 경로 큰잔치에서는 김국환, 문희옥 등 초청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을 펼쳐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원각사, '부기랑 느긋하장' 웰니스 체험

11월 8일, 웰니스 캠페인 일환
명상 · 다도 · 불무도 등 경험 제공



부산광역시가 개최하는 부산형 웰니스관광 체험 캠페인 '부기랑 느긋하장' 행사가 11월 8일 해운대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문화와 웰빙 콘텐츠를 결합해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쉼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기랑 느긋하장'은 부산의 공식 캐릭터 '부기'와 '느긋하게 쉬어 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행사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요가 명상 △차 명상 △불무도(佛舞道) 체험 △템플런치 시식 △힐링토크 △멍터(멍 때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요가 명상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차 명상으로 따뜻한 차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비우는 한편 불무도로 호흡과 동작이 하나 되는 평온함을 체험했다. 힐링토크 시간에는 안도 스님의 즉문즉답 시간이 진행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나래문화재단, 태국 대학생 초청 교류

11월 2일~9일, 불교문화 체험



태국 송클라나카린대 인문사회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부산을 찾아 한국불교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은 11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태국 대학생 6명과 인솔 교수 1명을 초청해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7월 태국 송클라나카린대에서 진행된 '한국어 도전! 골든벨' 수상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한나래문화재단은 지난해보다 초청 인원을 늘려 수상자 외 차순위 참가자 3명에게도 방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문화는 언어보다 깊은 마음의 교류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